

미국 내 EPS 포장 사용 아무런 문제없어

협회는 미국에서의 EPS 사용과 관련 법적 규제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많은 국내의 수출업체들을 대신 해 북미 스티로폼 재활용연맹(AFPR: Alliance of Foam Packaging Recyclers)에 문의했다. 이에 대한 AFPR 스타이너 전무의 답장을 소개한다.

ALLIANCE OF FOAM PACKAGING RECYCLERS Betsy Steiner Executive Director

May 19, 2008 Mr. H.S. Shin Korea Foam-Styrene Recycling Association 404, Hanam Building 44-27 Seoul, Korea

Dear Mr. Shin,

The Alliance of Foam Packaging Recyclers (AFPR) is a trade organization representing the expanded polystyrene packaging industry, including raw material suppliers, molders and equipment suppliers in both the U.S. and Canada. AFPR's primary role is to facilitate EPS recycling in the U.S. and to monitor legislative developments that may impact its use. **Currently, there are no legislative restrictions or bans on EPS transport packaging in the United States.** Although there are several legislative measures targeting disposable polystyrene food packaging ?- primarily in local jurisdictions within the state of California ?- the major impetus of these product bans are focused on litter, which is not a concern for EPS transport packaging. The renewed focus on polystyrene foodservice bans in California has caused a ripple effect in some areas, namely the City of Philadelphia, which did consider an EPS transport packaging ban in October 2007. The ban proposal for EPS was rejected due to a conflict with interstate commerce and the foodservice ban proposal is still under consideration. In addition, the state of California is now entertaining Assembly Bill 3025 to restrict the use of polystyrene loose fill packaging, which was just introduced on 2/22/08 and is still under review. AFPR is confident this bill will likewise be defeated. Historically, polystyrene has been a focus of legislators that wish to convey a proactive environmental effort to their constituency even though this is a misguided endeavor. The state of California conducted an extensive study on polystyrene in December 2004 that concluded a separate initiative on polystyrene packaging was not warranted, cautioning that "While bans may help solve immediate problems, they are generally not an effective long-term solution" and further advising "Bans are narrow in scope, addressing a very specific problem with a very specific solution. This narrow approach is an ineffective means of addressing a material with the global applications and ramifications of plastics." **In conclusion, we wish to reiterate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the use of EPS in the U.S.** and we are continuing to implement and promote programs that support responsible environmental stewardship including recycling, source reduction and manufacturing practices that are aligned with sustainable packaging guidelines. Additional information concerning our industry environmental performance can be found at www.epspackaging.org. We hope this is helpful information in understanding the legislative implications for expanded polystyrene transport packaging in the U.S.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please let us know.

Sincerely, ALLIANCE OF FOAM PACKAGING RECYCLERS



Betsy Steiner
Executive Director

친애하는 신 실장님

북미 스티로폼 포장재 재활용연맹(AFPR)은 미국과 캐나다의 원료 업체, 성형업체 및 기계제작업체를 포함한 EPS 포장산업을 대표하는 업계 단체입니다. AFPR의 주 역할은 미국에서의 EPS 재활용을 촉진하고 EPS의 사용에 나쁜 영향을 줄지도 모를 입법적 전개를 사전 감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EPS 포장재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규제나 금지도 없습니다. 비록 캘리포니아 주 안의 지방 관할구역에서 폴리 스티렌 식품포장재를 대상으로 하는 몇몇 법적 조치가 있지만 이러한 생산품 금지의 주요한 요인은 쓰레기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지 EPS 포장재에 관련 된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폴리스티렌 식품용기 사용 금지에 대한 갱신 된 초점은 필라델피아 시 같은 몇몇 지역에서 2007년 10월 EPS 포장재에 대한 금지를 고려하는 하는 것과 같은 파급 효과를 불러 일으켰으나 EPS에 대한 사용 금지 안은 각 주 사이의 통상에 있어 마찰 때문에 부결되었고 식품용기 사용 금지 제안은 아직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는 이제 폴리스티렌 루즈필(Loose Fill) 포장재의 사용을 규제하는 의회 법안 3025호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법안은 2008년 2월 22일에 제출되었고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AFPR은 이 법안이 마찬가지로 부결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역사적으로 폴리스티렌은 비록 잘못 된 대책이지만 자신의 지역 유권자들에게 진취적인 환경적 노력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의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2004년 12월 폴리스티렌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 연구보고서는 "금지 조치가 당면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장기 해결책은 아니다." 라고 경고하면서 더 나아가 "특별한 문제에는 특별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면 금지조치는 범위에 있어 옹색하다. 이러한 옹색한 접근은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소재를 다루는데 효과적이지 아닌 방법이다."라고 충고하면서 폴리스티렌에 대한 규제나 금지에 관한 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미국에서 EPS 사용에 어떠한 규제도 없다는 것을 되풀이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재활용, 자원 절감, 지속가능한 포장 지침에 부합하는 제조기술을 포함하는 책임 있는 환경적 책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진척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산업 환경적 업무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www.epspackaging.org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가 미국에서의 EPS 포장재에 대한 법적 영향의 이해에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질문이 있으면 연락주시시오.

2008년 5월 19일
베시 스타이너
AFPR 전무이사